



**초등학교 방과 후  
아동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**

**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**

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해 1월 일산동구 중산동에 문을 연 중산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아동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. 1층에는 작은도서관, 2층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어 다양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다.

글. 사진. 윤정원(고양시 아동청소년과)

**학교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**

다함께돌봄센터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와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학교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.

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만 6세~12세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다자녀가정 등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수시 입·퇴소가 가능하다. 운영시간은 학기 중 13시~19시, 방학 중 9시~18시이다. 이용료는 무료이며, 급·간식 비용만 이용자가 부담한다. 급·간식은 안전관리 및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전문 급·간식업체를 선정하여 제공한다.

올해부터는 저녁 7시 이후에도 돌봄시간을 연장하는 아동돌봄 틈새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.

**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한 활약**

특히, 중산 다함께돌봄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긴급돌봄 위주의 서비스를 지속했다. 이용 아동 수는 적었지만, 독서지도, 종이접기, 창의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을 지도하고, 1층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1일 1권 책 읽기, 그림자극 프로그램, 2층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영양과 신체 프로그램도 운영했다. 또한,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아동들은 센터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. 올해는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매직테니스 참여단체 공모신청에 선정돼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.

**고양시 2호점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**

올해 1월 18일 일산서구 송포동에 문을 연 대화 다함께돌봄센터는 대화마을 주민공동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,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변에 작은도서관이 있어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. 앞으로 작은도서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, 기 운영 중인 중산 다함께돌봄센터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올해 7월에는 덕양구 주교동 원당어울림플랫폼 주민커뮤니티센터 2층에 3호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.

구분	중산(1호점)	대화(2호점)
위치	중산로 73-2 모당커뮤니티센터 3층	대화로 61 대화마을 5-6단지 커뮤니티센터 3층
정원	40명	40명
문의	070-5220-2620	031-923-0818



**Mini Interview**

중산 다함께돌봄센터  
김수진 센터장



**Q.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돌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?**

A 철저한 방역을 통해 센터를 안전한 돌봄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간 아이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교육공백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센터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데,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학습지원 방법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.

**Q. 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?**

A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해줄 수 있는 인력풀이나 프로그램, 안전한 교육자료 제공 등 돌봄사업지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.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,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 가고 돌봄센터에 와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